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얼음 깨기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책, 노래, 영화 등을 접했지요.
삶을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책 / 노래 / 영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왜 그 한 가지가 생각났는지에 대한 이유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교회행사

10월

26,28일 성례 교육
29-11/1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하나복DNA네트워크
김형국 목사
“교회를 꿈꾼다”

11월

1,4일 성례교육
5일 성례식
12일 성찬식
19일 추수감사주일/찬양축제
25일 결혼예비학교 시작

경배 찬양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주소서

선교

[남윤정 선교사]

필리핀

1. 교회에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고, 경제적 자립, 일꾼들 세워지도록
2. 성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도록
3. 여러 명의 탑승이 가능한 큰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4.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문장 큰 울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나면

세상적인 생각을

쫓지 않게 된다.

로렌 커닝햄 (1935-2023)

소식

1. **성례식** 성례식 (11월 5일) 위한 학습/입교/세례/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2. **모집** 캄보디아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 : 2024년 2월17일(토) ~ 23일(금)
10월 28일까지만 신청 받습니다. (문의 : 이학엽강도사 010-6730-7517)
3. **결혼예비학교** 11/18 - 12/9(토요일,4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 오후 2시-7시 대상 : 결혼 예비 커플, 1년 미만 신혼 부부
4. **선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을 모아 선물을 보냅니다.
문의 : 김윤숙 간사 (010-3006-9638) / 상세 내용 후보 참조
계좌 : 전북 1013-01-3001821(더미션선교회)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삼십이 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열왕기상 20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은 20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의 통치 기간은, 여러 차례의 설명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때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18장] 하나님께서 아합 때에 3년간의 가뭄을 주셨지만,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며, 그릇 시냇가에서 보호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은 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갈멜산에서의 불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지역에 큰 비 소리와 함께 비를 주십니다.

[19장]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시금 힘을 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침내, 호렘산에 이르러 엘리야는 바람, 지진, 불이 지난 이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새롭게 왕을 세우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울 사명을 주십니다.

1_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0-22장의 말씀은, 3번의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아합이 결국 죽임을 당하는 아합 통치 후반기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사실 아합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처벌과 죽임을 당하여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위치였지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아합에 대해 길이 참고 계십니다. 그의 악함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엄청난 악영향에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뒤흔드는 전쟁으로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돌이키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허락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한 사람, 아합일지라도 끝까지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또한 담겨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께 때로 이와 같은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나눔]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곧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2_고난과 고통이라는 기회

이 본문에서 32명의 왕과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둘러 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 어려움 앞에서, 아합은 바알에게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알을 믿고 따랐다는 것은 사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알을 이용했을 뿐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도,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방법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고, 그 작은 인원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적으로 볼 때에, 몇명 되지 않는 이 군대를 통해, 무수히 많은 아람 군대를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을 성취하십니다.(13절)

삶의 위기, 고난, 고통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을 알게 될 기회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한 마디가 쉽지 않은 때 일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눔] 내가 겪었던 / 겪고 있는 내 삶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기도] 우리의 인생에 끝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